



은혜사 불교교양대학 수요일 야간반, 포교국장 혜해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다.

은혜사 불교교양대 배움 열기 가득

“영천시민 모두를 동문으로”

경북 영천의 신중 고찰 은혜사가 들 켜져가고 있다. 매주 화, 수요일 열리고 있는 영천 은혜사 불교교양대학이 영천시민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영천시에서 일을 하려면 꼭 은혜사 불교교양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그 열기가 대단하다. 이런 움직임은 2월 28일 5기 불교교양대학 입학식에 확연히 드러났다. 정원 300명 모집에 500명의 신입생이 몰려온 것. 아직 모집 공지도 안 한 6기 신입생 모집에 30명이 선 신청을 했을 정도다.

은혜사 불교교양대학의 수업이 열

**300명 정원에 500여명 몰려
산사체험 등 내면 성찰 기회 마련
수원원 건립, 1천 동문 배출 포부**

렸던 3월 31일, 저녁 7시. 어둑어둑한 산사에 하나 둘씩 수강생이 들어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조용한 산사의 강의실에는 삶의 지혜를 배우려는 이들의 열기로 후끈거린다.

은혜사 불교교양대학의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혜해 스님의 열강. 한때 죽음에 직면할 만큼 중병을 앓았던 스님은 “다음 생이라도 수행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많은 이들을 위해 회향 하겠다”는 간절한 기도 후 건강을 되찾았고 그 발원은 포교의 열정으로 열광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말 산사체험 프로그램. 철야로 이뤄지는 산사체험의 하이 라이트는 밤 12시 이후 이어지는 야간

산행이다. 짙컴한 밤 숲을 걸으며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 넘어 자신을 성찰하는 값진 계기가 되고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야새를, 남편을 또 동서를 데리고 와 은 가족이 동문이 돼 버리는 은혜사 불교교양대학. 5기에는 영천시청에서 무려 30명의 직원이 수강 신청을 했는가하면 영천의 영화촬영 12명, 팽풍진 조기축구회 8명 등 소문을 듣고 단체로 등록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면장, 이장, 부녀회장은 물론, 지역 일간지 기자, 학교장 등이 모두 등록을 했으니 영천시민 모두가 동문

인 셈이다. 동문애로 뽕뽕 뭉친 졸업생들은 봉사활동도 열심이다. 은혜사 교양대학 자원봉사단을 창단하여 영천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있다.

은혜사는 3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150명 규모의 수원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대구 대성사, 경산 안흥사, 청송 대전사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 한 기수에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동문들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영천=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천성산, 아름답죠?

지울 스님 직접 촬영 사진
부산·창원·대구 순회 전시

천성산 고수철 관통을 반대하며 천성산 발목 현장 포크레인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 지울 스님이 부산, 양산, 마산 일대에서 천성산의 사계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다.

3월 31~4월 2일까지 고수철 개통에 따른 분위기로 들떠 있던 부산역 광장에서 사진전을 연 것을 비롯 4월 9·10일 창원 용지공원, 19~23일 광주, 5월초 대구 등 순회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여기 이곳을 흐들러려 합니까”라는 주제 아래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는 지울 스님이 천성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지울 스님은 “고수철이 개통돼 초고속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 편리를 누리려는 댓가로 비싼 요금과 환승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빠름과 개



지울 스님이 부산역 광장에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발의 이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곡리 발목현장에서 공사 강행에 몸으로 맞서며 도롱뇽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울 스님은 수녀님들과 함께 자전거로 천성산 자락 달리기 행사를 여는 한편 ‘식목일 퍼포먼스’ 4월 17일로 예정된 ‘도롱뇽 음악회’ 등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도선사, 캄보디아 스님 수학 지원

소린 스님 20일 식탁식
“양국 불교 교량 역할 기대”

도선사주지 혜자(가)가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 스님의 한국불교 수학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해 12월 남양불교 체험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주지 혜자 스님이 왓 라지보 사원의 뽐센 칸스님과 협의, 두 사찰간의 견제결연과 양국 스님의 상호방문, 캄보디아 스님의 한국 유학 등을 협약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3월 14일 한국불교 수학을 위해 입학한 캄보디아 왓 라지보 사원의 소린 스님(Hem Sorin·25)은 20일 식탁식을 거행하고 혜자 스님으로부터 진성(眞性)이란 법명을 받았다. 소린 스님은 4월 6일부터 동국대 언어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일년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 내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해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다.

서투른 한국어로 “빨리 한국어를 익혀, 한국불교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힌 소린 스님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크라티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출가, 씨엠티푸의 왓 라지보 사원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친 수재이다.

혜자 스님은 “소린 스님이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불교 간의 교량역할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오른쪽)과 소린 스님이 정담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을 해주길 바란다”며 “소린 스님이 졸업하고 귀국할 때까지 학비와 체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이와 함께 내년 3월경 캄보디아 고승 뽐센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갖고, 캄보디아 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앙코르와트 성지순례를 통해 캄보디아 난민들에게 생활물품 등을 지원한다. 김은경 기자

소림사 무술승려 부활한다

무술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림사 무술승려가 부활한다. 중국 소림사가 위치한 허난성 덩펑시의 허봉부 부시장은 소림사 무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무술단 구성계획을 밝혔다. 관영신화통신이 3월 31일 보도했다.

무술은 불경공부와 연불수행을 하는 일 반승려와는 달리 소림 공부만을 전문적으로 연마한다. 공부는 공격적인 일반무술과는 달라서 수행과 참선을 통해 품행을 닦는

부산 낙동복지관 5주년

프로그램 강화·재정지립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부산 북지에 첫 발을 디딘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이 3월 30일로 개관 5주년을 맞이했다.

낙동복지관은 이와함께 개관 5주년 기념 행사를 4월 30일 오후 3시 국제신문 강당에서 기념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지역 주민,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비롯 사회복지관련 관계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권영택 위탁대학 교 불교대학원장의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제와 종교계의 참여방안’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도 연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낙동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의 시간도 갖는다.

1999년 3월 30일 개관한 낙동복지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등의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기능교육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또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공모, 방문간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실시하며 강서구 지역의 종합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낙동복지관은 ‘자원관리의 전산화, 체계화’, ‘프로그램 내실화 및 재정 지립’, ‘지역 사회 역할 강화’를 주요 지침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DB 구축, 후원자 매가 운동, 타복지 기관과의 협력 사업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 몽골성지순례

6월 3~7일 ... 생필품 전달

조계종 제9구 분사 동화사 신도회와 고급 신도단체가 주체가 되어 몽골성지순례를 떠난다.

6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몽골성지순례는 간담사에서 한·몽·일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를 갖고 몽골 대법회와 정제인사 교민들이 참석하는 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동화사 측은 특히 몽골 어린이와 교민을 돕기 위해 생필품 한 트럭분을 가져갈 계획이다.

몽골성지순례는 작년 8월 한-몽불교교류협회를 창립하여 대구하게유니버시아

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무술을 통해 자기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평행시는 소림사 외의 시내와 관광지 주변에 각각 무술승, 무술원을 건립하고 관광객에게 소림사 무술을 알리는 공연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구체적인 무술단 규모와 운영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소림무술은 무술경전 708권, 권술과 기구를 이용한 수련방법 552종, 소림공, 달마검 절기 등 무술체계가 방대하기로 유명하다.

한상희 기자

불국토, 복지시설 증사자 수계법회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는 3월 27일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개금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산하 복지시설 증사자들의 수계식(사진)을 봉행했다. 신입사원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수계식은 불국토 대표이

사 정관 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수계법회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혜종 스님은 불국토 전 사원을 대상으로 예불문, 삼귀의, 오계 등 사찰승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문과 함께 불국토 전 사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계사 정관 스님은 “계(戒)를 받은 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 오계 수계를 받은 직원들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청소년문화사업, 불교포교사업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법문 했다.

천미희 기자

개구리소년 합동 영결식

실종 11년 6개월만에 대구 외통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성서 개구리소년’ 5명의 합동영결식이 3월 26일 경북대 병원 영안실에서 동화사 스님들의 집전에 따라 불교의식으로 치러졌다.

유족과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포교국장 혜해 스님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20여명이 참가했고, 동화사 신도와 포교사단에서 동참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배지선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 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에수재법회 I

질때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시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회산신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스님사리신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요 · 경전봉정식	우리절
막재	4.18	일	수의점안 ·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6계 관정법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동문스님의 사언절(〈지장보살본원경〉을 봉정된 뒤 나눠드립니다. 이 <<본원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지장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용일 경우라면 원당 30,000원 이상이 될 것임이나 무료로 보시합니다. 막제에서는 윤2월을 보내며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선물이 될 금강경담다라니 명주판을 정만하여 보급합니다. 명주담다라니는 2장 1세트에 24,000원입니다.

생전에수재법회 II

우리절에서는 오는 4월 18일(음력 윤2월 그믐날) 생전에수계 회향 때에 맞춰 불자님들께서 미리 정만해 두었던 수의를 가져오시면 거룩하고 장엄하게 점안을 해 드립니다. 역법상 몇백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중요한 윤2월에 부처님 앞에서 수의를 정만하였다가 입혀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점안동참비는 무료입니다.